민주 "예산 갑질 충격" 기재부 압박…당정 갈등 확대 경계도

송영길 "초과 세수 50조 전망 충격"
전재수 "기재부 선 넘고 도 넘었다"
이재명 후보 핵심 공약 관철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전 국민 방역지원금과 지급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올해 국세 초과세수 추계를 놓고 당정간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애초 초과 세수 규모를 19조원대로 전망해놓고도 그간 '10조원대'를 언급하며 일부러 얼버무린 것이 아니냐며 비판과 압박을 이어갔다. 그러나 본격화된 대선 본선 국면에서 자칫 당정 갈등이 지나치게 확대돼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도 감지된다.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동수석을 맡은 전재수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서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넘을 수 있는 선을 넘고 도를 넘었다"며 "세수(추계) 오차율이 한 15% 되는데 이건 그냥 세수 예측이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니고,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서 마치 갑질을 하는 듯한 모양새"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기재부가 일부러 세수 예측을 줄인 것인가'는 질문에 "지금 현재 기재부가 보여왔던 행태를 보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중앙선대본 총괄본부장 회의에서 "초과 세수가 50조원에 달할 전망인데 충격적"이라며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도 말했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기재부를 향해 의도적 과소추계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정조사'를 거론하는 등 고강도 비판을 가한 것에 대한 연장선이다.

자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핵심 공약마저 당정 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정부를 몰아세우다 자칫 당정 갈등이 확대되는 모양새에 대한 우려도 있다. 여기엔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우세한 상황에서 섣불리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부담감도 엿보인다.

기재위 소속인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옳으니 그르니 다툴 성격이 아니다"라며 "(초과세수가) 19조원이 있다고 해도 연말까지 사용해야 할 부분도 있고 손실 보상 규모로 좀 더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당정이 서로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외부에서 보듯이 '국정조사 운운'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은 깜짝 놀랄 것"이라며 "조율을 해나가는 노력을 보여야지, 그냥 겁박하고 임기 말 정부니까 여당이 끌고 가겠다는 자세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당 내부에서는 압박에 따른 입장 선회보다는 기재부가 '알아서' 협조해달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기재부가 예산 편성에 대해 갖고 있던 입장에서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촉구했다.

원내 한 관계자는 "국조를 얘기했지만, 거기까진 아니고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라며 "재정당국이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尹 선대위 윤곽… '원톱'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유력

국민통합위원장 김한길 추진
'반문 빅텐트' 구상 외연 확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선대위와 버금가는 위상의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해 외연 확장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당과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선대위는 '총괄-상임-공동' 3단계 선대위원장 체제로 꾸려진다. 그 아래에는 정책·조직·직능·홍보 본부에 더해 당무지원종합본부·특보단까지 총 6개 선대본부를 두는 구성안이 검토되고 있다.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맡는 것이 유력시된다. 윤 후보는 금명간 김 전 위원장을 만나 총괄선대위원장직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이준석 대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도 검토되고 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나경원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거론된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당연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징성 있는 유력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책이란 점에서 최대 10명 안팎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캠프의 실무를 진두지휘할 선대본부장 후보군으로는 주호영 권영세 윤상현 김태호 등 중진들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임태희 전 의원이 거론된다. 국회부의장인 정진석 의원의 선대본부장 합류 가능성도 있다. 이준석 대표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김도읍 추경호 의원의 경우 본부장 또는 단장급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보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설치된다. 선대위와 별도로 꾸려지는 독립 기구로서 중도·호남·탈진보 진영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하며 윤 후보의 외연 확장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통합위 위원장에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이 추진되고 있다. 과거 민주당에서 비주류 좌장 격이었던 김 전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뒤 2015년 국민의당 창당에 참여하는 등 대표적 '비문' 인사라는 점에서 윤 후보의 '반문 빅텐트' 구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변에서 나온다.

이밖에 미래비전위, 약자동행위 등 별도의 위원회 구성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정책 전문성이 있는 김병준 전 위원장의 경우 미래비전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후보 비서실장은 신임 사무총장이 유력시된다.

/연합뉴스

"정치평론가로 세계관 구축하고 계신 듯…"

이준석, 또 안철수 저격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7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 "이제 정치평론가로 차별화된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계신 듯하니 슈퍼챗이나 받으시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안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지적했다. 슈퍼챗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후원금을 보내는 유료 서비스다.

앞서 안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거대 양당 후보 둘 중 한 사람이 당선되면 지난 5년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분열이 돼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싸잡아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달 초에도 안 대표를 향해 "이제 슈퍼챗만 받으시면 된다"고 저격한 바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가 "국민의힘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과 대결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공개적으로 자당 경쟁력을 깎아내린 데 대한 맞대응이었다.

/연합뉴스

"양당 기득권 깨고 기회의 나라 만들겠다"

김동연 광주 방문 지지 호소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7일 "저와 새로운 물결이 양당 구도 정치, 경제, 교육을 개혁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양당 구조와 40년 권력 분점 기득권 구조가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순한 정권교체나 정권 연장의 틀을 뛰어넘는 세력과 정치판을 교체해야 한다"면서 "양당 후보는 누가 되더라도 지금 정치판을 깨거나 교체하지 못한다. 기득권끼리의 바통 터치거나 기득권의 유지 확장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광주 정신을 이어받는 후보인지 의심스럽다. (윤석열 후보는) 광주 정신 폄훼했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고 평가했다.

김 전 부총리는 또 "완주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현실과 타협했거나 편한 길을 갔을 것이다"면서 완주 의지를 밝혔다.

단일화에 대해서는 "정치공학과 세 유불리에 따라 뭉치고 헤어지는 이합집산 합종연횡에 관심 없다"며 "추구하는 정치 기득권 깨는 것과 새 (정치적) 기회 만드는 방향과 진정성에 동참하는 세력이라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전 부총리는 앞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행방불명자 묘소, 제2묘역, 광주시립묘지 민족민주열사묘역을 들렀다. 구묘역에서는 바닥에 박힌 이른바 '전두환 비석'을 두 발로 밟은 채 서 있기도 했다. 김 전 부총리는 묘역을 둘러본 뒤 기자들을 만나 "광주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행방불명자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라브즙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체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2 전원 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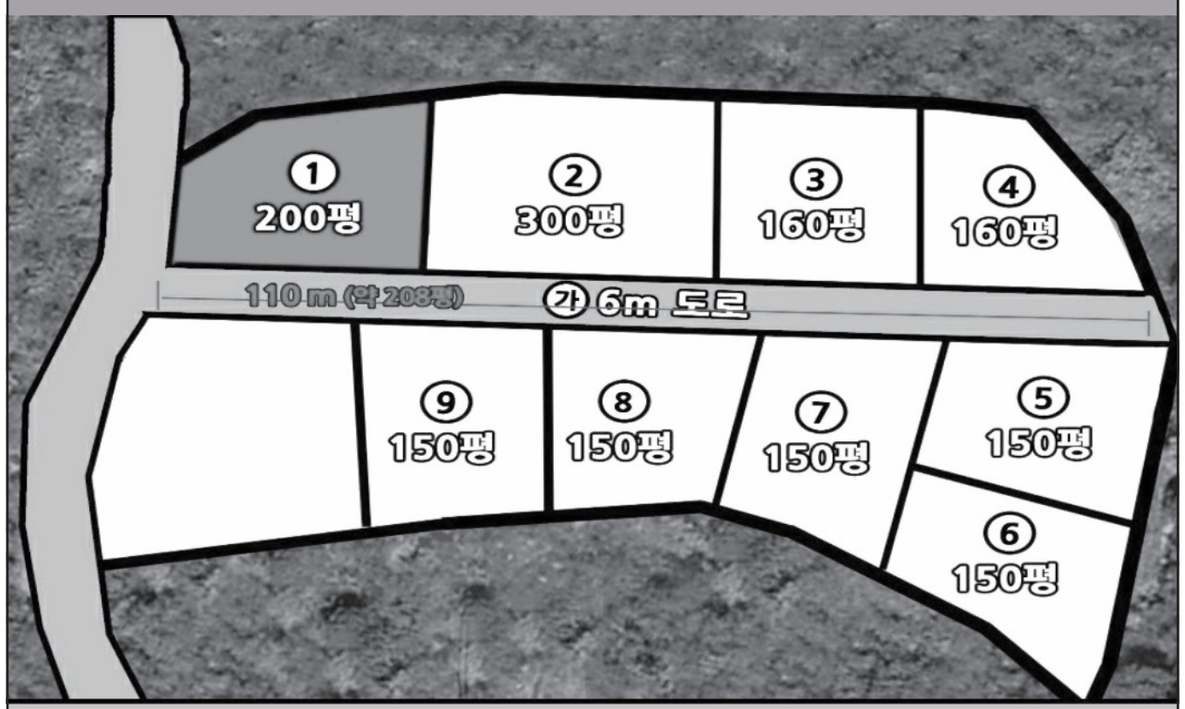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럽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m2(1.276평) 매 ㎡ 6십5만원

4 임야 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옹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자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중앙신용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150평, 200평, 500평, 950평),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